

# 해양포유류 안전 방류 지침

| 조업 현장 가이드 |



해양수산부  
해양생태과



국립수산물과학원  
고래연구센터

## 해양포유류 취급 3대 원칙

### 1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합니다.

현장에서 해양포유류를 다룰 때는 항상 어업인 등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 적절한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여 해양포유류에 물리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.

### 2 해양포유류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.

해양포유류를 살아있는 상태로 방류할 수 있도록 방류 작업 시 추가적인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다루십시오.

### 3 해양포유류를 바다로 돌려보냅니다.

어업인은 어구에 얽히거나 갇힌 해양포유류의 생존율을 낮추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하고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여 바다로 돌려보냅니다.

## 근거법령

### ●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8조의2(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)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(混獲)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●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

제10조(혼획·좌초·표류된 고래류의 처리) ① 혼획·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,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

혼획, 표류, 좌초한 죽은 해양포유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9쪽을 참고하세요!

# 우리나라 연근해 주요 혼획 해양포유류 6종



**밍크고래** · *Balaenoptera acutorostrata*

**형태** 최대체장 약 9.5 m  
수염고래류 중 가장 작은 종  
입 안에 200쌍 내외의 뾰뾰한 수염판,  
가슴지느러미 윗면에 뚜렷한 흰색 완장 무늬

**분포** 국내 전 해역



**남방큰돌고래** · *Tursiops aduncus*

**형태** 최대체장 약 2.7m  
다 큰 개체는 복부에 반점이 산재

**분포** 제주도 연안



**낮돌고래** · *Lagenorhynchus obliquidens*

**형태** 최대체장 약 2.5m  
부리가 매우 짧고 옆구리가 밝은 회색,  
등지느러미가 낮처럼 생겼다.

**분포** 동해 전 해역



**참돌고래** · *Delphinus delphis*

**형태** 최대체장 약 2.7m  
몸의 측면에 밝은 노란색과 회색의  
모래시계 무늬, 길쭉한 부리

**분포** 동해 전 해역



**상괘이** · *Neophocaena asiaeorientalis*

**형태** 최대체장 약 2m  
등지느러미가 없음

**분포** 서해, 남해, 동해 남부 연안



**쇠돌고래** · *Phocoena phocoena*

**형태** 최대체장 약 2m  
돌고래류 중 가장 소형, 주둥이가 뭉툭,  
작은 삼각형 모양의 등지느러미

**분포** 동해 중부 해역(강원도 북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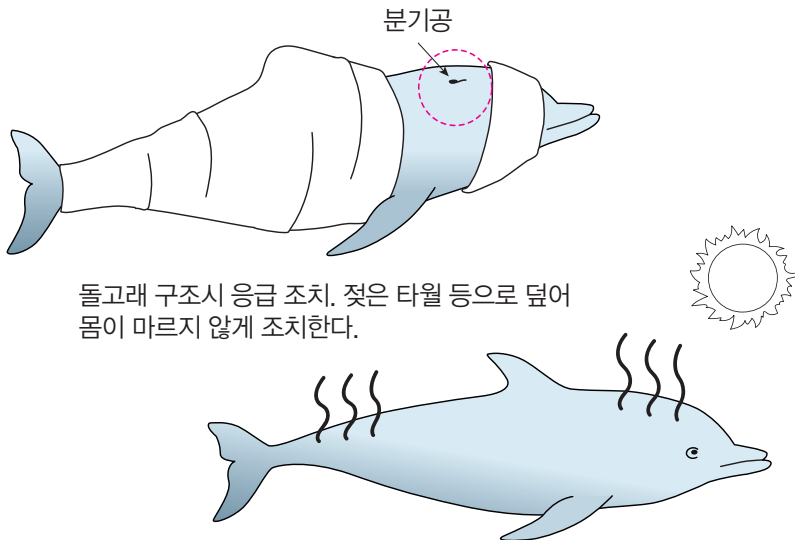
# 고래류 방류 방법

## 우선 조치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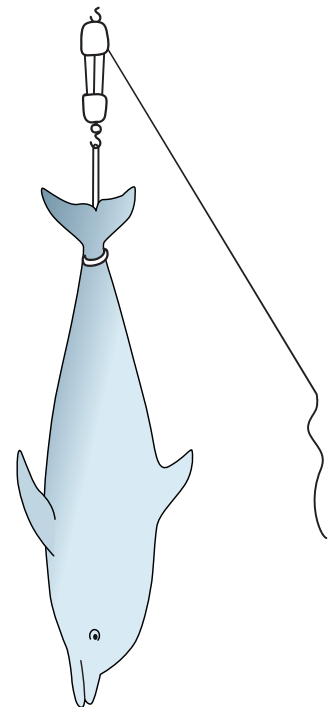
- 바다에 바로 방류할 수 있도록 고래류를 갑판에 올리지 않습니다. 엔진을 정지하고 천천히 고래류를 선박에 붙입니다. 고래류와 어구가 얽힌 부분을 확인하여 어구 등을 잘라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.
- 갑판 위로 끌어 올리거나 옮길 때는 폭이 넓은 끈을 사용합니다.
- 갑판 위의 고래류는 젖은 수건으로 덮어주거나 물을 뿌려줍니다. 젖은 수건으로 덮을 경우 분기공(숨구멍) 주변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눈도 가려줍니다. 고래류는 햇볕에 피부가 마르면 쉽게 화상을 입으므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줍니다.
- 고래류는 되도록 만지지 않도록 하며,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젖은 장갑을 착용한 후 만지도록 합니다.
- 해경에 상황을 알립니다.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합니다.

## 해서는 안되는 행동

- 옮기기 위해 발로 밀거나, 막대, 갈고리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주둥이, 가슴지느러미를 잡고 들거나 옮기면 안됩니다.
- 끈을 이용하여 꼬리자루로 잡아 끌거나 들어올리면 안됩니다.
- 주변에서 큰소리와 진동을 일으키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합니다.
- 방류 작업 시 날카로운 칼날이 고래류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.



살아있는 돌고래는 장시간 육상에 두고 몸이 마르게 방치해서는 안 됨.



꼬리 자루 등으로 몸통을 들어올려서는 안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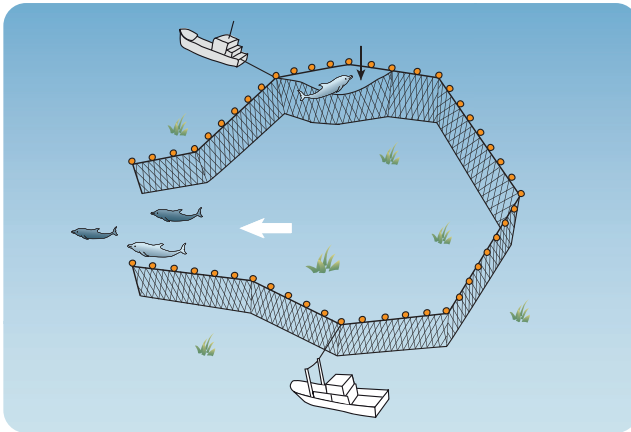
- 혼획된 고래류가 있는 물 속에 어업인 등 작업자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.
- 주둥이 주변을 만지거나 접근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돌고래의 꼬리는 매우 힘이 세므로 주변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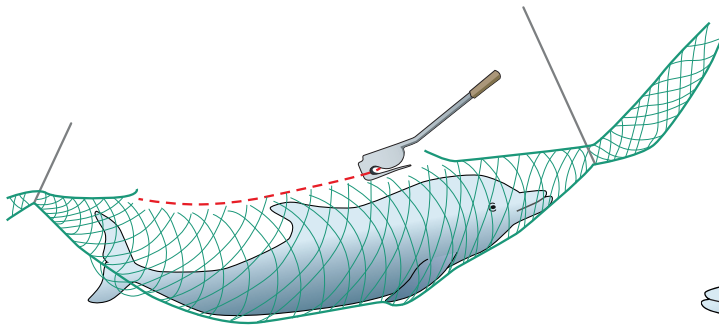
## 정치망 방류법

- 자력으로 고래류가 탈출 할 수 있도록 그물에 구멍을 내거나 그물 한쪽을 완전히 수면 아래로 낮추어 둡니다. 그물을 좁혀 특정한 방향으로 고래를 몰아 냅니다.
- 방류 작업 시 선박은 천천히 이동하여 고래류의 추가 부상은 방지합니다.



## 자망 방류법

- 고래류를 선박에 최대한 붙여 작업하며, 고래의 하중이 분산되도록 어구의 좌우를 선박에 고정합니다. 얇힌 어구는 고래의 몸통을 피해 길게 잘라 벌려줍니다.
- 가슴지느러미 등이 얇히지 않게 주의하여 고래가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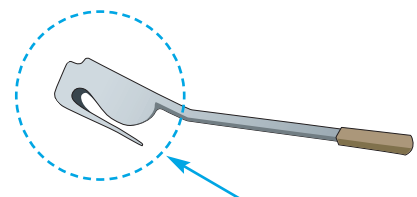


안전도구를 사용해 최대한  
고래에 가깝게 절단하여 줄 제거



## 통발 방류법

- 꼬리자루, 지느러미 등이 끈 형태의 어구에 얇힌 경우는 가능한 고래 몸통 가까운 부분을 잘라 방류합니다.
-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는 칼날이 안으로 숨겨진 안전칼날을 사용합니다.



칼날이 안으로 숨겨진  
안전칼날

# 기각류 방류 방법



## 우선 조치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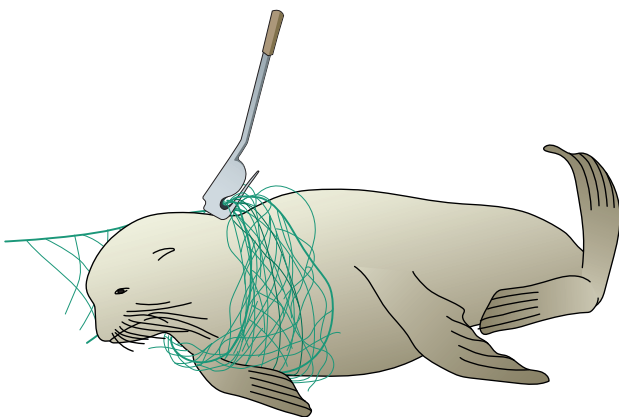
- 줄이나 그물에 얽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
- 갑판 위로 물개가 올라온 경우, 판자를 이용하거나 물을 뿌려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.
- 해경에 상황을 알립니다.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합니다.

## 해서는 안되는 행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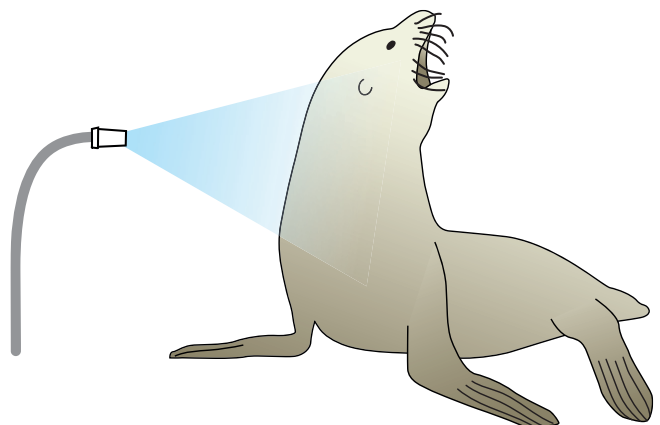
- 이동하기 위해 발로 밀거나 날카로운 막대, 갈고리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앞다리나 뒷다리를 잡아 들거나 끌어 이동하면 안됩니다.
- 주변에서 큰소리와 진동을 일으키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합니다.
- 방류 작업 시 날카로운 칼날 등을 몸통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.
- 되도록 만지지 않도록 하며, 필요한 경우 눈을 가리고 반드시 보호장갑을 착용한 후 만지도록 합니다.
- 주둥이 주변을 만지거나 접근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
## 방류 방법

- 어구에 얽힌 경우는 몸통 가까운 위치의 그물이나 줄을 잘라 방류합니다.
- 주변의 장애물을 치워 이동 경로를 확보한 뒤 물 등을 뿌려 탈출을 유도합니다.
- 가능한 빨리 자력으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


안전도구를 사용하여 어구 등 제거



# 구조 및 방류 사례



## 북방긴수염고래

- 2015년 우리나라 연근해역에서 40여년만의 발견 보고
- 전 대양에서 300마리 가량 서식
- 해양보호생물

### ▶ 구조 및 방류

- 2015년 2월 남해 미조 홍합양식장 고정줄에 얽힌 상태로 발견되어 어민이 신고
- 구조팀이 꼬리 주변에 얽힌 줄 3개 중 2개 절단
- 자력으로 남은 줄 끊어내고 탈출
- 부상 없이 생존 방류



## 상괘이

- 우리나라 남해, 서해 연안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소형돌고래
- 해양보호생물

### ▶ 구조 및 방류

- 2016년 12월 거제 능포항 인근 정치망에 갇힌 것을 어민이 신고
- 주둥이 주변 상처, 탈진 및 영양 부족 상태로 확인
- 구조치료기관에서 한달간 치료
- 건강 상태 회복 후 발견해역에 방류





## 구조 및 방류 사례



### 남방큰돌고래

-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100여 마리 서식
- 해양보호생물

#### ▶ 구조 및 방류

- 2019년 6월 태안 갯벌에서 썰물에 좌초된 남방큰돌고래를 어민이 발견하여 신고
- 몸을 바로 세워주고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부에 진흙을 발라주는 등의 응급 조치
- 밀물을 따라 갯벌에서 자력으로 탈출



### 물개

- 우리나라 동해에서 가을~봄에 주로 발견됨
- 동해안에서 육상에 올라오는 물개는 휴식이 필요한 상태임
- 해양보호생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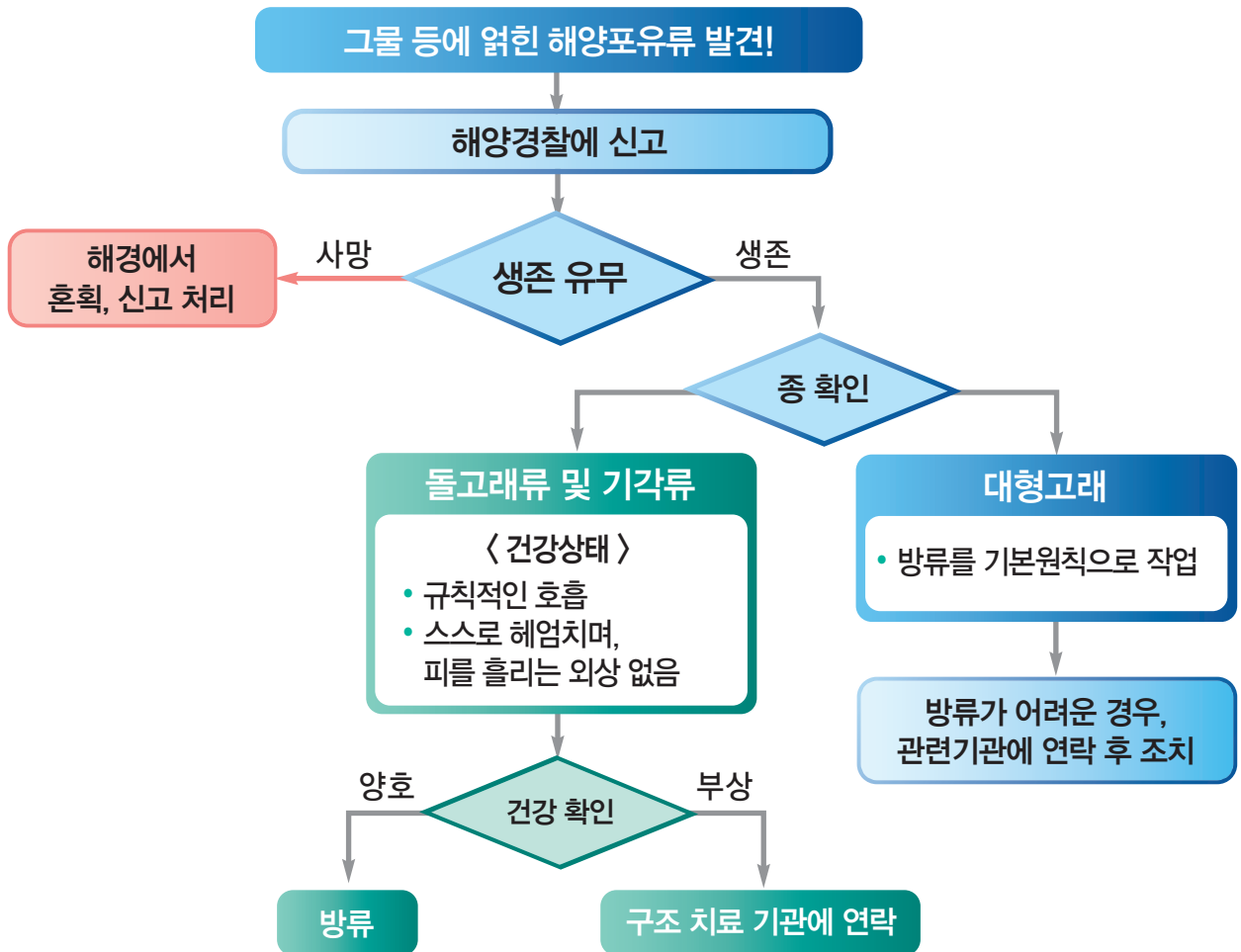
#### ▶ 구조 및 방류

- 2018년 4월 삼척 해변에서 그물에 얽힌 상태로 발견
- 가까운 구조치료기관 출동하여 구조
-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폐사





# 해양포유류 방류 및 구조 흐름도



## [ 해양포유류 관련 기관 ]

기관명칭	연락처	지역
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	044-200-5315, 5317	세종
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센터	052-270-0911	울산
해양환경공단	051-400-7984	부산
아쿠아플라넷 일산	031-960-8500	경기 고양
서울대공원	02-500-7335	경기 과천
롯데월드아쿠아리움	1661-2000	서울
(주)경포아쿠아리움	033-645-7887	강원 강릉
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	052-256-6301	울산
SEA LIFE 부산 아쿠아리움	051-740-1700	부산
아쿠아플라넷 여수	061-660-1111	전남 여수
아쿠아플라넷 제주	064-780-0900	제주

# 우리바다의 고래류

Whales and Dolphins of Korea

